



보도자료 제 11/150 호

즉시 보도용

2011년 4월 28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아시아, 전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으나, 경기 과열 위험 높아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늘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발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에서 아시아는 수출과 국내 수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랍 싱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금년과 내년에 견실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지역이 계속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2011년과 2012년에 약 7 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부분의 신흥 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인도의 주도 하에 약 8 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출 갭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2011년에 약 5.5 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중순에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과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 전망과 관련된 위험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사태, 그리고 일본의 재난이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 같은 새로운 하방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또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금융 상태가 취약하여 주로 무역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는 아시아 내에서 경기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로 연료와 식품 가격이 인상되어 2011년 2월에는 이 지역 전체에서 CPI 인플레이션이 약 4.5 퍼센트 증가했고, 이로 인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빈곤층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2011년에 더욱 증가한 후에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과열의 징후는 이 지역의 일부 자산 시장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위험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건전성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역경제전망보고서는 아시아가 거시경제 정책을 작년에 비해 더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경기 과열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활발한 신용 공급을 억제하고, 금리를 견실한 성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금융 부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 긴축과 거시 건전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의 유연성은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 건전화로 시행할 여유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수요를 억제하고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noop 싱 국장은 “미래를 전망해볼 때, 중기적으로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과제”라며, “사회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포용적인 노동 시장을 통해서 불평등을 축소하고, 국내 민간 수요를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